

국가대표 박지수, KB국민은행 유니폼 입는다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최종예선서 센터 활약한 기대주... 리바운드·블록슛 능력 탁월

여고생 농구 국가대표 센터 박지수(18·분당경영고3년)가 청주 KB국민은행 유니폼을 입는다.

박지수는 17일 서초구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2017 신입선수 선발회에서 전체 1순위 지명권을 획득한 KB국민은행의 선수를 받았다.

이번 드래프트 대상자 중 최대로 꼽히는 박지수는 지난 6월 2016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최종예선에서 국가대표 센터로 활약한 기대주다.

즉시전력감이다. 195cm의 큰 신장을 자랑하며 유연성과 발기슭이 좋다.

높은 재능권을 활용한 리바운드와 블록슛 능력도 탁월하다.

박지수는 리우올림픽 최종예선 5경기에서 평균 7점 10.8리바운드를 기록했다.

리바운드(예선)는 유럽에서 정상급 센터로 평가받는 엘레나 루치카(벨라루스)와 공동 1위에 올랐다. 블록슛도 1.6개(3위)나 했다.

이미 청소년 3학년이던 2013년 아시아권 수권대회를 앞두고 성인 국가대표 예비명단(16명)에 이름을 올려 화제를 모았다.

이듬해부터 본격적으로 성인대표팀에서 활약했다.

박지수는 좋은 유전자를 물려받았다. 농구선수 출신 아버지 박상관(47) 명지대 전 감독과 배우선수 출신 이수경(48)씨 사이

에서 태어났다.

박지수는 "저를 뽑아주신 KB국민은행의 감독님, 코치님들에게 감사하다. 힘들 때 힘이 돼준 부모님과 선생님들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다"며 "다가오는 시즌에 WKBL의 관도를 뒤흔들 수 있는 선수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지수는 내달 13일부터 20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18세 이하 아시아여자선수권대회 대표팀 명단에 이름을 올려 시즌 초반 결장이 불가피하다. 협의가 필요하다.

선발방식은 지난 시즌 정규리그 성적 역순에 따라 6위팀(KDB생명) 6개, 5위팀(신한은행) 5개, 4위팀(삼성생명) 4개, 3위팀(KB국민은행) 3개, 2위팀(KEB하나은행) 2개, 1위팀(우리은행) 1개로 총 21개의 구슬을 추첨 바구니에 넣고 추첨했다.

부천 KEB하나은행은 첼시 리 파문에 의한 징계로 추첨과 상관없이 가장 늦은 6순위와 12순위를 받았다.

용인 삼성생명은 2순위로 인성여고 포워드 이주연(18)을, 춘천 우리은행은 3순위로 분당경영고 포워드 니운정(18)을 각각 지명했다.

4순위에선 구리 KDB생명이 분당경영고 가드 차지현(18)을 선발했다.

인천 신한은행은 5순위로 삼천포여고 포워드 겸 센터 함영지(18)를, KEB하나은행은 6순위로 수원대 센터 박찬양(23)을 각



인덕수 KB스타즈 감독이 17일 오전 서울 양재동 The-K호텔 3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WKBL 2017 신입선수선발회에서 1순위로 박지수를 뽑고 유니폼을 들어보이고 있다.

각 선발했다.

1라운드의 역순으로 이어진 2라운드 지명에선 신한은행이 수피야고 이혜미(18), KDB생명이 광주대 우수진(22), 우리은행이 수원대 박시은(22), 삼성생명이 숙명여고 김민정(17), KB국민은행이 효성여

고 이소정(18), KEB하나은행이 삼천포여고 김미연(19)을 택했다.

이날 대상자 20명 중 15명이 구단들의 선택을 받아 지명확률 57.7%를 기록했다. 전년도 69.6%보다 낮다.

/뉴시스

전북체육회 66개 회원종목단체 통합

전라북도체육회가 지난 15일 전북체육협회의 통합을 끝으로 통합체육회 산하 66개 단체가 전부 통합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체제를 구축했다.

전북체육회는 다른 시도와 달리 단체들의 통합작업에 적극적인 태도로 임해왔다.

앞으로 종목단체는 중앙 종목단체와 도 체육회의 임원 인준 절차 등을 마치고 통합종목단체로서 각 종목별 활성화 및 효율적인 운영방향을 모색하는 등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가게 된다.

도 체육회 최정민 스포츠진흥처장은 "향후 회원단체가 화합을 이룰 수 있도록 유도하면서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하는데 중점을 두고 종목단체 등록 검토 및 원활한 지원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종목단체가 발전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민근기자

진안홍삼배 전국배드민턴 대회 성료

제7회 진안홍삼배 전국배드민턴 대회가 지난 15일부터 양일간 진안군체육회관과 진안초등학교에서 열렸다.

진안군체육회가 주최하고 진안군배드민턴협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500여명, 1,200여명의 동호인들이 참여했다.

대회를 주관하는 진안군배드민턴협회는 매년 철저한 대회 준비는 물론 대회기간 동안 선수들이 불편한 점이 없는지 등을 살피고 대회가 끝난 후에도 참가팀들과 지속적인 유대 관계를 맺으며 교류하고 있다.

올해는 특별히 이용대 전 국가대표 선수를 초청해 사인회를 열어 동호인들과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해 큰 호응을 얻었다. 개회식과 대회 중간 행운권 추첨을 통해 홍삼, 수삼 등 진안의 특산물과 배드민턴 용품을 증정해 선수들에게 또 다른 즐거움을 주었다.

또한 이용대 선수는 추첨을 통해 이날 대회에 참가한 동호인들에게 자신이 사용했던 배드민턴 라켓 등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열어 팬들에게 감사 선물을 주었다.

김오수 회장은 "진안홍삼배 배드민턴대회를 통해 배드민턴 저변이 더욱 확대되고 활성화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진안홍삼배 배드민턴대회에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기자

전북현대-FC서울 리그에 챔스까지 '불붙은 경쟁'

두 팀 승점 차는 없어... 내일 AFC 챔피언스리그 4강 2차전 격돌

내일 AFC 챔피언스리그 4강 2차전 격돌
심겨울 것 같았던 전북현대와 FC서울의 2016 K리그 클래식 우승 경쟁에 불이 붙었다.

두 팀의 승점 차는 없다. 다득점에서 전북이 1위, 서울이 2위다.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4강 2차전 맞대결까지 기다리고 있어 전북과 서울의 경쟁은 시즌 막판 흥행 카드로 부상했다.

전북현대는 지난 15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제주유나이티드와의 현대오일뱅크 K리그 2016 34라운드(상위 스플릿 첫 경기)에서 2-3으로 패했다.

33라운드까지 이어온 18승15무의 무

패 행진에 마침표를 찍었다.

전북이 첫 패배의 충격에 휩싸인 사이 서울은 같은 날 울산현대전에서 2-0으로 이겼다.

승점이 60으로 같다. 전북(18승15무1패)이 지난달 말 심판패수 사건에 따른 승점 삭감 징계를 받은 탓이다. 징계 전까지 전북이 68, 서울이 54로 두 팀의 승점 차는 14였다.

패할 줄 모르는 전북의 순위은 우승이 예상됐지만 승점 9가 삭감되면서 서울도 우승 희망을 품게 됐다.

공교롭게 전북은 징계 후에 1무1패로 하락했다.

서울은 광주FC, 울산을 연파했다.희비쌍곡선이 명확하다

전북현대는 최근 6경기에서 1승4무

패, 서울은 최근 3연승을 포함해 3승2무1패다.

다득점에서 전북(+62)이 서울(+60)에 앞서 선두를 지키고 있지만 큰 의미는 없다.

나란히 4경기씩 남겨둔 가운데 다음달 6일 마지막 라운드에서 맞대결을 펼친다.

최종 38라운드까지 우승의 운곽이 드러나지 않으면 이 경기가 우승 결정전이 된다.

리그에서 그치지 않는다. 내일 아시아축구연맹(AFC) 4강 2차전을 갖는다.

1차전에서 전북이 4-1 대승을 거둬 결승행이 유력하지만 최근 흐름을 보면 낙관할 수 없다.

탄력을 받은 서울은 안방에서 열리는 2차전에서 반전을 노린다.

서울이 3-0 이상으로 승리하면 극적으로 결승에 진출할 수 있다.

황선홍 서울 감독은 우승 가능성에 대해 "목표는 분명하지만 끝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 모든 것은 끝나야 아는 것이다"며 "현 시점에서 우리가 얼마나 안정감을 가지고 이기는 경기를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챔피언스리그에 대해선 "3골 차이가 간단한 문제는 아니지만 극복하지 못할 문제도 아니다"고 답했다.

올해 맞대결에선 전북이 4전(K리그 클래식 3경기·챔피언스리그 4강 1차전) 전승으로 압도했다.

/김민근기자

이봉주 선수 참가 진안홍삼배 마라톤대회 성료

진안군 용담댐에서 펼쳐진 제1회 진안홍삼배 마라톤대회가 굵은 가을바다에서도 성공적으로 열렸다.

지난 16일 전국에서 마라톤 동호인 1,500여 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5km 10km, 하프코스, 풀코스 등 4개 종목으로 치러졌다. 전체 코스는 용담댐관리단 광장에서 출발해 용담댐 수문 위를 달려 모정교로 이어지는 절경의 레이스다.

특히 이번 대회에는 1998년 애틀랜타올림픽 은메달리스트인 국민 마라톤러 이봉주 선수가 10km 레이스를 함께 해 청정 진안의 가을 정취를 온 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이날 참가자들에게는 기록증과 완주메달, 기념품이 주어지고, 종목별 상위 입상자에게는 상장과 트로피, 상품이 전달됐다.

진안군마라톤협회 관계자는 "진안홍삼배 마라톤대회는 마라톤으로 건강도 챙기고 아름다운 풍광 속에서 맑은 공기를 마시며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기자

위대한 체·인·지의 시작

태권도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태권도 교육, 체험, 수련, 문화교류의 장
<http://www.tkdwon.kr>

태권도원 - 우리 세대에 우리가 만든 세계문화유산

올림픽 단일종목으로는 최초로 국제경기, 체험, 수련, 교육, 연구, 교류 등 태권도에 관련된 모든 것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공간입니다.

또한 전 세계인이 태권도를 통해 한국을 느끼고 한국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시대의 살아있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Taekwondowon THE GREAT CHANGE 태권도원

전북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482 / 063) 320-0114